

제 101 회

#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lt;예시&gt;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団法人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 제101회 한자실력급수 [ 사범급 ] 문제지

## 객관식 (1~50번)

※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 塑 ] ① 剿 ② 輶 ③ 艘 ④ 迢
2. [ 擺 ] ① 朶 ② 怕 ③ 隋 ④ 捌
3. [ 禪 ] ① 餹 ② 鵠 ③ 鋸 ④ 迢
4. [ 驟 ] ① 脆 ② 擘 ③ 摧 ④ 諷
5. [ 董 ] ① 圻 ② 昕 ③ 炘 ④ 觴

※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 岫 ] ① 澗 ② 縞 ③ 拷 ④ 蒿
7. [ 稠 ] ① 狙 ② 蚤 ③ 阻 ④ 徂
8. [ 哮 ] ① 肴 ② 黻 ③ 驍 ④ 廖
9. [ 拗 ] ① 蟻 ② 邀 ③ 翹 ④ 擾

※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 憑 ] ① 恙 ② 愆 ③ 愬 ④ 快
11. [ 諂 ] ① 校 ② 嬌 ③ 媚 ④ 秘
12. [ 賚 ] ① 勛 ② 緡 ③ 敗 ④ 賜
13. [ 愴 ] ① 秘 ② 慵 ③ 杭 ④ 哄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哀 ② 衷 ③ 襄 ④ 衰
15. ① 乞 ② 乳 ③ 乾 ④ 孔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砍伐: 감벌                      ② 踴步: 규보  
③ 蓴菜: 전채                      ④ 猖獗: 창궐
17. ① 漸漬: 점지                      ② 宸念: 진념  
③ 偈頌: 계송                      ④ 喀痰: 객담
18. ① 慟絕: 통절                      ② 吩咐: 분부  
③ 狎褻: 압설                      ④ 腋窩: 액과
19. ① 罌粟: 영숙                      ② 淳樸: 순박  
③ 匙箸: 시저                      ④ 飢聞: 어문
20. ① 茄菹: 가저                      ② 樗櫟: 저력  
③ 養漱: 양속                      ④ 瓠犀: 호서

※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산 아래를 굽어살피니 소문난 [성황당] 나 무가 눈에 띄었다.  
① 聖煌堂 ② 聖隍堂 ③ 城煌堂 ④ 城隍堂
22. 오늘부터 이틀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① 小康狀態                      ② 消康狀態  
③ 小降狀態                      ④ 消降狀態
23. 한밤중이라 간혹 [순라군]의 딱따기 소리만 먼 데서 들렸다.  
① 循邏軍 ② 循喇軍 ③ 巡邏軍 ④ 巡喇軍
24. 온 식구들은 밥 대신 [주박]으로 허기를 채웠다.  
① 調粕 ② 酒粕 ③ 調薄 ④ 酒薄
25.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① 腦卒中 ② 腦卒重 ③ 腦猝中 ④ 腦猝重
26. 예전에는 포개어 묶은 육포인 [속수]를 예물로 사용했다.  
① 束銖 ② 屬銖 ③ 束脩 ④ 屬脩
27. 관계 당국은 축산 농가와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우제류]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했다.  
① 偶蹄類 ② 偶除類 ③ 憂蹄類 ④ 憂除類

※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최근 들어 경기가 되살아나니까 음식 장사가 가장 [       ]하다.  
① 虹霓 ② 邯鄲 ③ 闢門 ④ 殷賑
29. 그는 혼례 의식의 순서를 적은 [       ]를 두 손으로 받들어 펼쳐 들고 예를 진행했다.  
① 羹楪 ② 鋸刀 ③ 笏記 ④ 鉗口
30. 그는 용감한 시민으로 [       ]을 받았다.  
① 鷄肋 ② 謳歌 ③ 褒彰 ④ 糾彈
31. 그녀는 [       ]이 심해서 기침을 하느라 밤 잠을 설친다.  
① 几案 ② 喘息 ③ 幢竿 ④ 遁俗
32. 그는 말투가 [       ]해서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인다.  
① 杳然 ② 敏捷 ③ 詣闕 ④ 語訥
33. 할머니는 오래되어서 칙칙하게 [       ]된 한복을 입고 계셨다.  
① 褪色 ② 冪數 ③ 剝製 ④ 兵站

34. 어머니는 김밥을 [ ]에 차곡차곡 담아 주셨다.

- ① 暈輪 ② 緝績 ③ 饌盒 ④ 祭粢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남이 잘한 것을 과장되게 칭찬하여 천거함.

- ① 顛頊 ② 澌物 ③ 苧布 ④ 吹嘘

36.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여 세상에 나서지 못하고 파묻혀 있음.

- ① 詛嚼 ② 儲嗣 ③ 蕙艾 ④ 淹滯

37. 나란히 서서 함께 가거나 옴.

- ① 連袂 ② 柳絮 ③ 檣檀 ④ 雩壇

38.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

- ① 腕章 ② 翳日 ③ 棧閣 ④ 淵藪

39. 글이나 글씨 또는 기운 따위가 웅장하고 막힘이 없음.

- ① 餘燼 ② 雄渾 ③ 御廩 ④ 幄次

40. 움푹 패어 웅덩이가 된 땅.

- ① 收攬 ② 茱萸 ③ 窪地 ④ 細緻

41. 서까래 끝의 암키와를 받기 위하여 평고대 위에 덧대는 나무.

- ① 殯宮 ② 椽檻 ③ 鋤犁 ④ 繖蓋

※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 麻中之蓬 ]

- 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②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  
 ③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  
 ④ 잘난 사람에다 못난 사람을 비교함.

43. [ 一炊之夢 ]

- ① 나와 외물은 본디 하나이던 것임.  
 ② 낮잠 또는 좋은 꿈.  
 ③ 인생이 덧없고 영화도 부질없음.  
 ④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음.

44. [ 烹頭耳熟 ]

- ① 한 가지 일이 잘되면 다른 일도 저절로 이루어짐.  
 ②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림.  
 ③ 뜻밖의 이익이 생김.  
 ④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일이 잘되어 이익이 돌아올 때만 기다림.

45. [ 類萬不同 ]

- 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김.  
 ② 뛰어나서 견줄 데가 없음.  
 ③ 일이 뒤범벅이 되어 순서가 없음.  
 ④ 비슷한 것이 많으나 서로 같지는 아니함.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壬戌之秋七月既望<sup>㉔</sup>에 蘇子與客으로 泛舟하여 遊於赤壁之下하니 淸風은 徐來하고 水波는 不興이라 舉酒屬客하여 誦明月之詩하고 歌窈窕之章이러니 ㉕少焉에 月出於東山之上하여 徘徊於斗牛之間이라 白露는 橫江하고 水光은 接天이라 縱一葦之所<sup>㉖</sup>如<sup>㉗</sup>하여 凌萬頃之<sup>㉘</sup>茫연하니 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하고 飄飄乎如遺世獨立하여 羽化而登仙이라 於是에 飲酒樂甚하여 扣舷而歌之하니 歌曰 桂棹兮蘭槳으로 擊空明兮泝流光이로다 渺渺兮余懷여 望美人兮天一方이로다

《古文眞寶》

46. 밑줄 친 ㉔와 ㉖의 품사로 알맞은 것은?

- ① ㉔: 명사, ㉖: 동사 ② ㉔: 동사, ㉖: 동사  
 ③ ㉔: 명사, ㉖: 명사 ④ ㉔: 동사, ㉖: 명사

47. 밑줄 친 ㉕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적다 ② 짧다 ③ 이윽고 ④ 드물다

48. 밑줄 친 ㉗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같다 ② 너 ③ 만약 ④ 가다

49. 밑줄 친 ㉘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무섭다 ② 넘다  
 ③ 열리다 ④ 업신여기다

50. 밑줄 친 ㉙을 문맥에 맞게 쓴 것은?

- ① 網然 ② 忙然 ③ 忘然 ④ 茫然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賭 ( )
- 주2. 翹 ( )
- 주3. 璿 ( )
- 주4. 顫 ( )
- 주5. 颯 ( )
- 주6. 誠 ( )
- 주7. 履 ( )
- 주8. 寘 ( )
- 주9. 佹 ( )
- 주10. 菱 ( )
- 주11. 殫 ( )
- 주12. 敖 ( )
- 주13. 詆 ( )
- 주14. 蹕 ( )
- 주15. 斛 ( )
- 주16. 篋 ( )
- 주17. 騙 ( )
- 주18. 澹 ( )
- 주19. 跛 ( )
- 주20. 幌 ( )
- 주21. 寰 ( )
- 주22. 尻 (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賡 ( )
- 주24. 蠲 ( )
- 주25. 牢 ( )
- 주26. 麼 (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짓을      폐 ( )
- 주28. 팔        현 ( )
- 주29. 지모      담 ( )
- 주30. 흘을      표 ( )
- 주31. 감탄할    희 ( )

- 주32. 탐낼      도 ( )
- 주33. 집울림    횡 ( )
- 주34. 이슬기운   해 ( )
- 주35. 으르렁거릴   포 ( )
- 주36. 대나무    균 (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恤	聳	祛	伋	朽	暝	茹	蕭
------	---	---	---	---	---	---	---	---

- 주37. ○颯      ○索      ○寂 ( )
- 주38. ○懼      ○動      ○出 ( )
- 주39. 老○      ○落      ○滅 ( )
- 주40. 救○      撫○      ○民 (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醯漿 ( )
- 주42. 槌擊 ( )
- 주43. 帑藏 ( )
- 주44. 翠黛 ( )
- 주45. 砂嘴 ( )
- 주46. 自縊 ( )
- 주47. 肉髻 ( )
- 주48. 惆愴 ( )
- 주49. 嗤笑 ( )
- 주50. 擅權 ( )
- 주51. 甘汞 ( )
- 주52. 蠲滅 ( )
- 주53. 勁悍 ( )
- 주54. 春煦 ( )
- 주55. 鷲瓦 ( )
- 주56. 搨影 ( )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사진 찍기가 취미였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현상소]를 차렸다. ( )
- 주58. [현상 공모]에서 그의 출품작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다. ( )
- 주59. 임신부가 [진통]을 시작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 )
- 주60. 이 약은 [진통] 효과가 탁월하다. (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撤夜 籠城을 繼續해 오던 學生들은 이른바 안개 政局을 뚫고 어떻게 鬪爭해 가야 할 것인지를 討論하고 있었다. (            →            )
- 주62. 그녀는 깊은 산속에서 느껴지는 情謐을 찾아 떠났다. (            →            )
- 주63. 날씨가 더워지자 아버지께서는 摺旋을 가지고 다니셨다. (            →            )
- 주64. 新進氣銳의 學徒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地位도 國政에 容斥할 處地가 아니다. (            →            )
- 주65. 老莊 哲學이 한동안 韓國 哲學界를 風彌했다. (            →            )

※ 풀이에 맞게 [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곤비]: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함. (            )
- 주67. [첼언]: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
- 주68. [쾌척]: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음. (            )
- 주69. [틈입]: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감. (            )
- 주70. [반흔]: 상처나 부스럼 따위가 다 나은 뒤에 남은 자국. (            )
- 주71. [견각]: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뒤뚱뒤뚱 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
- 주72. [견잠]: 고치를 지은 누에. (            )
- 주73. [효옹]: 사납고 용맹스러운 인물. (            )
- 주74. [반연]: 휘어잡고 의지하거나 기어 올라감. 무엇에 이르기 위한 연줄로 삼음. (            )
- 주75. [금박]: 금이나 금빛 나는 물건을 두드리거나 압연하여 종이처럼 아주 얇게 눌러서 만든 것. (            )

※ 문장 속 [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그가 갑자기 지조를 꺾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            )
- 주77. 등산객들은 여유분의 [양말]을 덧신어 발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
- 주78. 예전에는 [주판]으로 하던 계산을 이제는 계산기나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 (            )
- 주79. 옆집 아저씨는 성미가 [강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            )
- 주80. 임금은 이순신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려 그의 넋을 위로하였다. (            )
- 주81. [명현] 반응이 거의 없는 아토피 치료제가 처음 등장했다. (            )
- 주82. [사특]한 계교를 경계해야 한다. (            )
- 주83. 물일을 자꾸 하다 보면 손에 [습진]이 생기기 쉽다. (            )
- 주84. 응원자는 상대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의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안 된다. (            )
- 주85. 한국인은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다. (            )
- 주86. 그녀는 소금과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오징어와 낙지를 [교반기]에 넣어 혼합했다. (            )
- 주87. 그의 주장에는 평소 생각해 온 인간에 대한 성찰이 고스란히 [피력]되어 있다. (            )
- 주88. 누나는 상품 할인권을 [절취선]에 맞춰 잘랐다. (            )
- 주89. 그는 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            )
- 주90.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이 [급살]을 맞을 놈아. (            )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惹起○端]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끌어 일으킴. ( )
- 주92. [暴○天物]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림. ( )
- 주93. [耕田○井] 밭을 갈고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삶. ( )
- 주94. [寄與補○] 이익을 주고 모자라는 것을 보탬. ( )
- 주95. [龍蟠虎○]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 ( )
- 주96. [乘○之性] 타고난 천성. ( )
- 주97. [阿○苟容]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 또는 그런 행동. ( )
- 주98. [臥龍鳳○] 때를 만나면 큰일을 할 사람이나, 지략이 뛰어난 젊은이. ( )
- 주99. [意氣○沈]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 )
- 주100. [笑○藏刀]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 (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멸망한 조국을 한탄하며 [望雲之情]의 회한에 잠겼다. ( )
- 주102. 세월이 흐르면서 단어의 본의가 바뀌는 일은 [破天荒]의 상태라 할 수 있다. ( )
- 주103. 영화에서 귀신들이 [蓬頭亂髮]하고 나와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 )

- 주104. 공적으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보다는 융통성이 없더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尾生之信]의 자세가 나올 경우도 있다. ( )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중국 초나라 장왕은 [삼 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서 훗날 응비할 기회를 기다렸다.] ( )
- 주106. 어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선비는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애달프게 통곡했다. ( )
- 주107. 그녀는 이 문제를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 )
- 주108. 그는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多岐亡羊 ( )
- 주110. 勺水不入 ( )
- 주111. 煙霞痼疾 ( )
- 주112. 膠柱鼓瑟 (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未有瓦雀虛過搗舍 ( )
- 주114. 十斫木 無不斫 ( )
- 주115. 遠族 不如近鄰 ( )
- 주116. 才食一匙 不救腹飢 (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則豈哉若卽雖焉於安已矣夫以

주117. ○賢士之處世也는 譬○錐之處囊中이라 《史記》

주118. 民欲與之偕亡이면 ○有臺池鳥獸나 ○能獨樂哉리잇고 《孟子》

주119. 立身行道하여 揚名○後世하여 ○顯父母가 孝之終也니라 《孝經》

주120. 燕雀○知鴻鵠之志○리오 《十八史略》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獨義是己道在價節法術見足作

주121. 勤爲無○之寶요 慎○護身之符라 《明心寶鑑》

주122. 生財有大○하니 生之者衆하고 食之者寡하며 爲之者疾하고 用之者舒하면 則財恒○矣리라 《大學》

주123. 人之性惡하니 必將待師○然後正하고 得禮○然後治니라 《荀子》

주124. 莫○乎隱이며 莫顯乎微니 故로 君子는 慎其○也니라 《中庸》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 ]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誦詩三百하되 授之以政에 不達하며 使於四方에 不能專對하면 [ 奚 爲 以 亦 雖 多 ] 리오 《論語》

국역: 시경 삼백 편을 외우고도 정사를 맡아서 통달하지 못하며,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홀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비록 많이 외웠으나 또한 무엇하리오.

주126. 以道佐人主者는 [ 下 天 以 不 兵 強 ] 니 其事이 好還일새니라 《老子》

국역: 도로써 인주를 돕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니 그 일이 잘 돌아오기 때문이다.

주127. 詩三百을 [ 蔽 言 曰 以 之 無 一 思 邪 ] 니라 《論語》

국역: 시경 삼백 편의 뜻을 한마디의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주128. [ 則 天 蒸 有 有 生 民 物 ] 이로다 《詩經》  
국역: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나게 하셨으니 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詩曰 [ 靡 不 有 初 나 鮮 克 有 終 ] 이라 《小學》

주130. 上善若水하니 [ 水 善 利 萬 物 而 不 爭 ] 하며 處衆人 之 所 惡라 故 幾 於 道니라 《老子》

주131. 木受繩則直하고 [ 金 就 礪 則 利 ] 라 《荀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春望> - 杜甫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 감시화천루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 渾欲不勝簪

(나) <睡起>  
㉢ 簾影深深轉 荷香續續來  
㉣ 夢回高枕上 桐葉雨聲催

(다) <述志> - 吉再  
臨溪㉤ 모옥獨閑居 月白風清興有餘  
㉥ 外客不來山鳥語 移床竹塢臥看書

주132.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133. ㉡을 국역하시오.

주134. ㉢을 국역하시오.

주135. ㉣을 국역하시오.

주136. (나)의 지은이 이름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13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138. ㉥을 국역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屈原이 既放에 游於江潭하여 行吟澤畔할새 顏色㉠초췌하고 形容枯槁러니 漁父見而問之曰 子非三閭大夫與아 何故至於斯오 屈原曰 舉世皆(㉡)이어늘 我獨(㉢)하고 衆人皆醉어늘 我獨醒이라 ㉣是以見放이로라 漁父曰 聖人은 不凝滯於物하여 而能與世推移하나니 世人皆濁이어든 何不澗其泥而揚其波하며 衆人皆醉어든 何不舖其糟而歎其醜하고 ㉤何故深思高擧하여 自令放爲오 屈原曰 吾聞之하니 新沐者는 必彈冠이요 新浴者는 必振衣라하니 安能以身之察察로 ㉥受物之汶汶者乎아 寧赴湘流하여 葬於江魚之腹中이언정 安能以皓皓之白으로 而蒙世俗之塵埃乎아 漁父莞爾而笑하고 鼓枻而去하여 乃歌曰 滄浪之水清兮어든 可以濯吾(㉦)이요 滄浪之水濁兮어든 可以濯吾(㉧)이로다 遂去하여 不復與言하니라

《古文眞寶》

주139.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0. ㉡과 ㉢에 각각 들어갈 漢字(正字)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 ㉢: )

주141. ㉣을 국역하시오.

( )

주142. ㉤을 국역하시오.

( )

주143. ㉥을 국역하시오.

( )

주144. ㉦과 ㉧에 각각 들어갈 漢字(正字)를 쓰시오.

(㉦: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夫天地者는 萬物之逆旅요 光陰者는 百代之過客이라 而㉠浮生이 若夢하니 爲歡이 幾何오 古人秉燭夜遊가 良有以也로다 況陽春은 召我以㉡연경하고 大塊는 假我以文章이라 會㉢도리之芳園하여 ㉣序天倫之樂事하니 群季俊秀는 皆爲惠連이어늘 吾人詠歌는 獨慙康樂이라 ㉤幽賞이 未已에 高談이 轉清하여 ㉥開瓊筵以坐花하고 飛羽觴而醉月하니 不有佳作이면 何伸雅懷리오 如詩不成이면 罰依金谷酒數하리라

《古文眞寶》

주145. ㉠을 국역하시오.

( )

주146.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7.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8. ㉣을 국역하시오.

( )

주149. ㉤을 국역하시오.

( )

주150. ㉥을 국역하시오.

(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0. 09. 17. (목)

결과조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 제101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 객관식 ■

1	③	6	③	11	③	16	③	21	④	26	③	31	②	36	④	41	②	46	①
2	②	7	①	12	④	17	②	22	①	27	①	32	④	37	①	42	②	47	③
3	③	8	④	13	②	18	④	23	③	28	④	33	①	38	③	43	③	48	④
4	①	9	③	14	①	19	①	24	②	29	③	34	③	39	②	44	①	49	②
5	④	10	②	15	④	20	③	25	①	30	③	35	④	40	③	45	④	50	④

## ■ 주관식 I ■

주1	부유할 춘	주21	기내 환	주41	해장	주61	撤→徹	주81	瞑眩
주2	자랑할 후	주22	콩무니 고	주42	퇴격	주62	情→靜	주82	邪慝
주3	아름다운옥 혼	주23	貝	주43	탕장	주63	旋→扇	주83	濕疹
주4	떨릴 전	주24	虫	주44	취대	주64	卉→喙	주84	擲揄
주5	흘날릴 양	주25	牛	주45	사취	주65	彌→靡	주85	慇懃
주6	화할 함	주26	麻	주46	자액	주66	困憊	주86	攪拌機/器
주7	신/신을 구	주27	吠	주47	육계	주67	贅言	주87	披瀝
주8	둘 치	주28	銜	주48	추창	주68	快擲	주88	截取線
주9	완전할 혼	주29	蕁	주49	치소	주69	闖入	주89	幫助
주10	마를 위	주30	俵	주50	천권	주70	癥痕	주90	急煞
주11	다할/두루 탄	주31	禧	주51	감홍	주71	蹇脚	주91	鬧
주12	놀 오	주32	叨	주52	견감	주72	繭蠶	주92	殄
주13	꾸깃을 저	주33	弘	주53	경한	주73	梟雄	주93	鑿
주14	길치울 필	주34	漉	주54	춘후	주74	攀緣	주94	裨
주15	열말/휘 곡	주35	咆	주55	취와	주75	金箔	주95	踞
주16	상자 험	주36	筠	주56	탐영	주76	詭辯	주96	彝
주17	속일 편	주37	蕭	주57	現像所	주77	洋襪	주97	諛
주18	비구름일 엄	주38	聳	주58	懸賞公募	주78	籌/珠板	주98	雛
주19	절뚝발이 파	주39	朽	주59	陣痛	주79	剛愎	주99	銷
주20	휘장 황	주40	恤	주60	鎮痛	주80	諡號	주100	裏

# 제101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 주관식 II ■

주101	X	주118	雖, 豈	주135	잠에서 깨어나니 높은 베개 위에
주102	X	주119	於, 以	주136	徐居正
주103	O	주120	安, 哉	주137	茅屋
주104	O	주121	價, 是	주138	바깥 손님 오지 않고 산새들만 지저귀니
주105	三年不蜚	주122	道, 足	주139	憔悴
주106	被髮徒跣	주123	法, 義	주140	㉠:濁, ㉡:淸
주107	袖手傍觀	주124	見, 獨	주141	이 때문에 추방당했다
주108	青天霹靂	주125	雖多 亦奚以爲	주142	무슨 연고로 깊이 생각하고 고상하게 행동하여
주109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	주126	不以兵強天下	주143	남의 더러운 것을 받는단 말인가
주110	음식을 조금도 먹지 못함	주127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주144	㉠:纓, ㉡:足
주111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	주128	天生蒸民 有物有則	주145	부평초 같은 인생은 꿈과 같으니, 기쁨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주112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	주129	처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이 없으나 능히 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주146	煙景
주113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그냥) 지나랴	주130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나 다 투지 않으며	주147	桃李
주114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주131	쇠는 숫돌을 좇으면 날카로워진다	주148	天倫의 즐거운 일을 떠나
주115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주132	感時花濺淚	주149	그윽한 감상이 그치지 않음
주116	첫술에 배부르랴	주133	온통 비너조차 이기지 못하겠네	주150	아름다운 자리를 펴 꽃 앞에 앉고
주117	夫, 若	주134	발그림자 깊숙이 옮겨 오고		